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신민기입니다.

이번 일로 다시 글을 올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대청의 의원들과 청소년 여러분, 사무국 등 모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유 불문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저와 의장단에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롯이 저희들 몫입니다.

다만 반성 대신 궤변과 자신의 논리만을 강변하는 태도로는 대청의가 새롭게 거듭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의 반성의 글조차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왜곡하는 태도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이를 바로 잡는 것조차 저희 의장단의 책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 이미 7, 8, 9 대 의원을 연임하고 계시는 윤채민 의원님께서 올리신 글에 대해 간략히 응답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운영위원도 아니신 윤 의원님께서 글을 올렸을 때, 이 분께서 왜 이렇게 나서실까 하는 의구심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런 글로써 응대를 하는 것이 공연한 논쟁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님께서 제 글은 물론 대청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답을 해 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고, 또 이번 기회에 저의 대청의에 대한 생각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글을 올립니다.

## 1. 우선 규정 위반은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윤채민 의원님께서 구구절절한 사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윤 의원님의 해명으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과연 규정을 어겨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단지 유치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 더 중요하고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사 부득이한 사연이 있다고 해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자신들이 규정을 제대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 만을 입증할 뿐입니다. ‘법률의 부지’는 결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대청의 규정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규정 자체에 의해 정해집니다.

## 2. 더욱이 운영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아닙니다.

- 윤채민 의원님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윤 의원님께서 운영위의결이 있으면 규정 위반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윤 의원님의 주장에 따르면, “... (규정위반 행위가 운영위원회에서) 이의제기 없이 ... 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탈법적이고 자의적인 태도입니다. 윤 의원님께서 스스로의 말씀이 선량한 다른 운영위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으신지요? 윤 의원님께서 7,8,9 대 대청의 의원을 지내셨으니, 이러한 문제를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는 이러한 행동이 관행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3. 일부 운영위원의 중립의무 위반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 당사자도 아닌 윤 의원님께서 나서고 계신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을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운영위원은 이미 중립의무 위반 또는 위반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어 배제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이지, 새로운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합니다.
- 그런데 당사자도 아닌 윤 의원님께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 문제를 그렇게 두둔하시는지 오히려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 의원님

께서 당사자의 대변인이 아니신 이상, 당사자가 직접 말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 4. 의장단 신임 관련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자의적인 판단과 행동을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 우리 대청의 규정에 따르면, 최소한 의장단 불신임 관련 절차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지 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의무”만 지고 있습니다.
- 윤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로 “(전략)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 (중략) … 이를 표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고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본회의가 소집된 이상, 그것 자체로 투표행위는 개시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운영위가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윤 의원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 5. 투표는 신성한 것입니다.

근거도 없는 온라인 투표방식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에 있어서 투표 방식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규정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방식은 더욱 그러합니다. 제도 그 자체는 편리하고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온라인 방식은 조작 가능성 등 맹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 우리 대청의 경우에도, 올해 의장단 선거 직후, 익명으로 온라인 투표의 신뢰성에 대해 이슈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사실 저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이번 불신임안을 제기한 인물 중 한 명이 주도했다는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특정 후보 측의 글의 조회수가 일반 의원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정황도 있습니다. 의장단 불신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겠다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온라인 투표 결과의 조작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에서 불신임안에서는 이를 근거도 없이 도입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투표 방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온라인 방식의 투표는 어떠한 명문의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원칙없이 제멋대로식의 행태는 우리 대청의 권위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더 이상 구구한 변명과 억측으로, 의장단을 흔들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말이 나온 김에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사실 몇 가지만 공유할까 합니다.

#### 1. 이번에 진행된 일련의 절차가

일부 인물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 우리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놀라운 것은 일부 찬성한 의원들조차 불신임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발의에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냥 불신임안에 서명만 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야 내용을 알고 황당해하고 분개했다는 말을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 2. 이번 규정위반 행위가 일부러 의도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본 불신임 안의 상정이 40명 요건을 충족시키지 원천무효라는 점은 누구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규정 위반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이루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발의 요건이 40명인 걸 알면서 발의자 40명을 다 모으지 못해 일부러 모른 척하고 30명만 모았다는 추측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3. 이러한 행동이 우리가 대청의 의원으로서  
절대 하지 않겠다 서약했던 파벌조장행위,  
의원활동의 방해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당시 낙선했던 일부 후보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다양한 정황이 있습니다.
- 이번 의장단 신임 여부 대표발의자는 다름아닌 기호 1 번 후보자입니다.
- 그 대표발의자는 지난 8 대 때도 의장단 불신임을 주동한 바 있습니다
- 제 글에 대해 반박한 윤채민 의원도 기호 1 번 후보였습니다.
- 9 대 의장단 당선 직후, 익명으로 「9 대 의장단 당선 결과에 대해 의혹이 있습니다」란 글로 온라인 투표 조작가능성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순수한 의혹 제기가 아닌 특정 인물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 특정 후보 측의 온라인 부문 조회수가 조작되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일부 의원이 제게 직접 ‘선거 기간 중 특정후보의 인터넷 글 조회수를 조작하였다’고 실토했던 바 있습니다. 최소한 얼마나 조직적으로 했는지 또는 광범위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부가 특정 후보 측을 위해 F5 를 누르는 식으로 조회수를 늘렸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황이 보입니다. 제가 쓴 글은 조회수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100 여 건밖에 안 되는데, 제 글을 반박한 윤 의원님의 글은 불과 몇 시간만에 500 여 건에 이릅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인지요? 최소한 윤 의원님의 글을 이해하려면, 제 글을 먼저 읽어 보셨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대청의 의원이 불과 200 여 명, 총회에 참석할 인물이 100 명도 되지 않는 우리 대청의의 ‘현실’로 볼 때 말입니다
- 이러한 행동이 우리가 서약서에서 절대 하지 않기로 맹세하였던, “유언 비어, 타 의원 비방, 파벌 조장’ 등과 무엇이 다르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 4. 의장단 불신임 제도가 자신들의 오락거리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 우리는 말씀 드린 대로, 이번에 불신임안을 주동했던 인물들은 상습적으로 의장단 사퇴를 주장해왔거나, 근거 없이 선거의 의혹을 제기했거나, 온라인 상의 정보를 조작하는 인물이라 판단됩니다.
- 기회만 되면 “사퇴하라”고 주장하여 전국민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국회의원 이은재 씨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정녕 우리 대청의가 개그콘서트의 소재로 전락하기를 원합니까? 아무리 방송출연을 원한다고 이런 식으로 매스컴을 타서야 되겠습니까?
-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불신임 운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온라인 투표로 하자고 합니다. 윤 의원님의 말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부족한 인원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과반수가 넘는 부득이하게 불참한 의원들께서는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투표도 참여하지 않은 채 결과만 통보받게 되는 상황이므로 총회 시작 직전 의장단과 위원장, 사무국이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불신임안 투표만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규정을 대놓고 위배해 놓고 그것이 “내용도 모르고 투표도 참여하지 않은 채 결과만 통보받게 되는 의원”을 위해서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말씀인가요?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률 격언이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청소년을 대표하겠다는 대청의 의원들이 1년에 불과 4번 있는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다 관철하겠다는 발상도 우습지만, 이들을 위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 그리고 윤 의원님은 “부족한 인원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대청의 여건 상, 불신임안의 발의요건을 엄청나게 완화해 놓았습니다. 40명(의원의 10 몇 퍼센트 수준)만 모아도 발의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를 감안한 것입니다. 이미 불신임안이 부의가 되었으면,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필히 참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투표를 못하고 폐기되는 것입니다. 재적의원 1/3의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의 불신임안 발의요건은 엄청나게 완화된 조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의장단 불신임 절차는 촉진하고 권장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물론 불신임 절차를 까다롭게 해 놓았다고 하여 의장단이 기고만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여러 제도 중 가장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미로, 가장 마지막에 작동해야 하는 견제와 균형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의장단 불신임 요건을 규정에 위배해 가면서까지 완화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요? 여러분이 의장이 되고 싶으시다면, 대청의 제도를 더럽힐 생각을 하기 전에 청소년의 권익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십시오.

- 이들의 행태를 종합해 볼 때,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던 저에게는 놀랍다 못해 역겹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두려운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우리 대청의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우리 대청의 역사에 오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이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번에 이토록 강력하게 비판하는데는 나름의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 1. 제가 지난 번 글을 통해 제기했던 이슈의 핵심은, 전체적인 절차가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졌나 하는 점입니다.

- 세세한 절차에 대한 효력 여부를 다루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세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 위반을 제외하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말씀드렸다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절차는 제대로 된 과정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몇 가지 단편적인 절차 위반보다 전체 절차의 진행과정 및 취지가 도대체가 어떠한 명분도 없고 규정도 따르지 않는 총체적인 문제점이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번 절차가 누군가 현 의장단을 의도적으로 흔들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 하지만 민주주의는 내용보다 절차입니다.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자체의 뿌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절차는 끼리끼리 모여서 논의해서 대충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2. 투표 방식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를 명백한 권한이나 규정이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대청의 권위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 이번 9 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막상 선거에서의 부정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측에서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선거에서 의혹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국민 전체의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18 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개표 부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거 제도 개혁은 우리나라 제도 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각국의 선거제도, 특히 개표 등과 관련해서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불편하게, 그리고 아날로그적으로 (디지털 방식이 아닌) 문제에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가능하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개표하고, 투명한 유리 투표함을 설치하여 각 개표구 자체적으로 개표하며, 가능하면 온라인 투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편리함 대신 조작가능성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강렬한 투표의지, 참정권 행사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번 사안은 어떻습니까? 정확히 이러한 흐름과 역행하지 않습니까? 규정을 위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선거제도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계속 온라인 투표를 주장하실 건가요? 아무리 의장단이 무력하게 보인다고, 청소년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장단의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아니 자신들 마음대로 이를 진행해서야 되겠습니까?

### 3. 우리 청소년들이 기성 정치인들의 적폐를 따라서야 되겠습니까?

-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2 명의 전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노무현과 박근혜입니다.
- 너무나도 다른 두 명의 대통령! 그들의 공통점이라고는 모두 탄핵소추를 당했다는 점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당한 탄핵소추로 인해 오히려 전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어 지금도 차가운 감옥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명의 대통령은 기득권인 새누리당과 김기춘에 의해 모함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촛불 혁명’,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현재 불신임을 주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촛불입니까? 김기춘입니까? 만일 촛불이라고 강변하고 싶으시다면, 꿈수 쓸 생각하지 말고, 청와대를 몇 번이고 쳐들어갈 수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감동을 주었던 촛불정신을 지켜 주십시오.

### 4.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의 의장단 흔들기를 그만 두십시오.

- 흔히들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듯, 아직도 우리 청소년들은 아이 취급받기가 일쑤입니다.
- 우리는 원칙과 패기로 승부해야 합니다. 현실에 타협하고 불의에 굴복하는 어른들과는 달리 우리는 미래와 원칙, 그리고 현실에 맞서는 용기로 승부해야 합니다. 우리 대청의 미래, 우리나라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단결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저희 의장단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의장단으로 취임한지 인제 2 달 남짓 지났습니다.

- 저는 대청의 의원이 된 지도 인제 수 개월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 제게 부의장은 과분하다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저희들이 선거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은 “소통”과 “대청의 다운 대청의”입니다.

-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 변화를 검토하고 있고, 실제로 개선하였습니다. 자문위원을 3 명에서 4 명으로, 기자단이나 비평단의 권익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의 불미스러운 일로 의장단 등이 마음 고생이 많았지만, 나름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대청의가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조직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 날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지난 선거를 통해 약속했던 일들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또 한번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6.7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 9 대 부의장 신민기